코로나 속 창작 활동

죽느냐 사느냐 생생한 팬데믹 기록, 예술이 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코로나19, 예술로 기록'을 통해 976편의 예술작품이 탄생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무명 예술가들이 팬데믹의 경험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 45억 지원사업

지난해 문학·공연 등 976건 선정
2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안배
연극 존망 갈림길, 메타버스 체험…
"마음껏 창작, 예술가 존중받는 느낌"

집밖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니 코로나19도 종착역에 가까워진 느낌이다. 사실 코로나19의 시발점에서 우리에게 바이러스의 공포를 감각적으로 깨우쳐준 건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컨테이젼'(2011)이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영화는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고,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예술가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위기 상황에서 예술은 배부른 사치로 여겨지며 뒷전으로 밀렸고, 관객을 모아야 하는 예술가들은 괜시리 죄인 취급을 받았다.

이제 다시 예술가들의 시간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한 세상과 우리의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킬 때가 온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을 벌인 이유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모든 시시콜콜한 상황을 예술가들의 창의적 시선과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도록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 분야에 걸쳐 총 45억원을 지원했다. 이례적으로 수급자 정산 과정을 생략해 문턱을 낮췄고, 지난해 9~10월 진행한 공모에 지원사업 사상 최다인 총 3228건이 응모해 최종 976건이 선정됐다.

선정 작품은 가정과 여가 등 일상의 모습을 그린 유형이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역과 의료를 주제로 한 유형이 15.2%로 뒤를 이었다. 선정 작가는 수도권 출신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비수도권 작가들이 40.3%를 차지했고, 2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안배해 폭넓은 연령대의 목소리를 담았다.

극단 '어니스트 씨어터'를 운영하는 공연연출가 오광욱씨는 '공연 제작의 변화, 연극 존망의 갈림길'이라는 기록물을 내놨다. 그에게 코로나19는 '전복'이었다. "연극을 왜 해야 하는가, 공연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방역지침 아래서 연극을 제작하며 부딪쳐야 했던 디테일한 문제들과 그 해법에 관한 고민을 후대를 위해 또박또박 기록했다.

박종관 위원장

타악 연주자 정다휘씨는 자신의 밴드 '쌍화차 온더락'이 팬데믹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담은 다큐멘터리 '쌍화차 온더 코로나'를 제작했다. 공연 기회가 줄고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지만, 제한된 상황에 맞춰 녹음을 하고 앨범을 제작하는 적응의 과정을 유쾌한 생존 스토리로 풀어냈다.

국악그룹 '팀 M&M'은 메타버스 체험을 극화한 음악영화 '메타소리꾼 Bang'을 내놨다. 코로나19로 공연을 못하게 됐지만 메타버스에서 활로를 찾은 경험을 실사와 3D그래픽을 오가며 재치있게 살렸다. 코로나19를 '삶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예술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사업이라 지금까지 경험한 지원사업 중 베스트였고, 힘든 시기에 단비와 같았다"고 말했다.

재즈 뮤지션이자 작가인 레일라는 "코로나19는 예술인들의 취약함을 수면 위로 드러낸 폭풍우였다"고 표현했다. 그는 '연대하는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으자'는 생각으로 글을 쓰던 중 지원사업을 만났고,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쉬게 된 재즈 뮤지션들과의 대화를 르포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했다. 그는 "멈춰있던 작품 활동이나 기획의 시동을 걸게 해준 사업이었다. 주제만 있다면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기에 예술가들이 존중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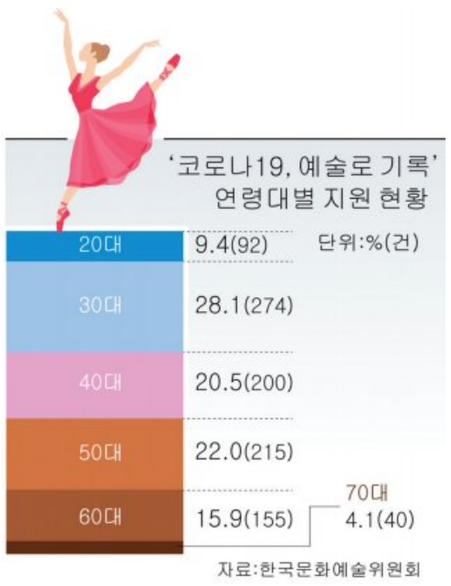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면서 "문화선진국 독일 등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건강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예술인에게 조건 없는 지원을 한다. 사회적 제도가 부족한 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엔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걸러진 50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대국민 감동 프로젝트 TOP11'을 선정했다. 코로나 시국에 소외된 요양시설 환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각인각색 팀의 창작판소리 동화 '빛바랜 사진', 구급대원이 바라본 코로나19 시대의 응급실 모습을 표현한 고경자 작가의 '코로나, 꺼지지 않는 불꽃', 백신 예약에서 접종까지 과정을 실감 나게 그려낸 박형숙 작가의 르포 '백신 접종 그 현장을 기록하다', 다문화가정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본 이은아 작가의 '지영' 등, 전국 각지의 무명 예술인들이 몸소 경험한 생생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기록에 의의를 둔 사업인 만큼 결과물의 예술적 완성도를 논하긴 어렵다. 하지만 향후의 예술가 지원사업이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작 활동의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할만하다. 박종관 위원장은 "기록과 저장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은 항상 필사적으로 현실을 기록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땀을 흠뻑 뒤집어쓴 의료진 사진 한 장이 감동을 선사한다. 그것이 이번 사업이 가진 근본적 가치관이다. 훗날 코로나19 극복의 기록을 찾아볼 때 지금 남겨진 약 1000개의 결과물들이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유주현 기자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경계 허문 블랙박스 공간서 K컨템퍼러리 아트 맛보세요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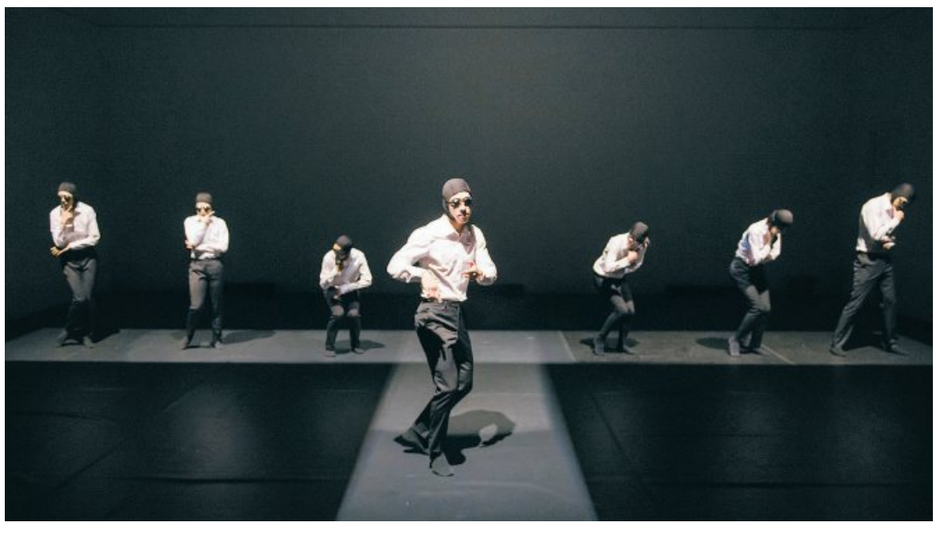
안은미·이날치 등 릴레이 공연
미디어아트와 공연예술 만남도

안은미, 이날치부터 박다울,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태싯그룹까지. 힙하다는 한국의 컨템포러리 아티스트가 한자리에 모여 릴레이로 공연을 이어간다. 6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펼쳐질 컨템퍼러리 시즌 '싱크 넥스트22' 얘기다.

'싱크 넥스트'는 지난 2월 본격적인 콘텐트 제작 극장으로 변신을 선언한 세종문화회관이 처음 기획한 시즌 프로그램이다. 지금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외부 예술가들을 전면에 내세운 페스티벌로 흥행몰이를 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서울시극단을 비롯해 뮤지컬단, 오페라단, 국악관현악단 등 산하 9개 예술단을 거느린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기관이지만 창작 분야에 영 존재감이 없던 세종문화회관이 기지개를 켜는 셈이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예술단 중심의 제작극장 변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술단만으로는 관객에게 다가가기 어려워 브릿지로 만든 기획"이라며 "세계 최전방 수준에 와있는 한국의 컨템포러리 아트를 세종문화회관의 공간과 잘 매칭해 수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가변형 블랙박스라는 S씨어터의 특성을 살려 장르간 경계는 물론 무대와 객석의 경계까지 허무는 구상이다.

메인 게스트는 개막작과 폐막작을 모두 장식하는 현대무용가 안은미라 할만하다. 장영규, 백현진 등 그의 오랜 예술적 동지들과 함께 만든 솔로 레퍼토리로 엮은 개막작 '은미와 영규와 현진'(6월30일~7월3일), 인도네시아 현대 무용가들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폐막작 '안은미의 섬섬섬'(9월1~4일)에는 직접 무대에 오르고, 젊은 소리꾼들을 위한 공연 '소리의 만찬-창창 프로젝트'(7월29~31일)에서는 예술감독을 맡았다. 안은미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넥스트'로 갈 수 있을지 실험하는 무대다. 서울 한복판의 블랙박스에서 밤마다 날뛰는 예술가들을 만나는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독보적 색채로 한류의 중심에 선 이날치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도 동원된다. 이날치는 '토끼, 자라, 호랑이, 독수리, 용왕'(7월20~23일) 공연으로 수궁가 활동에 마침표를 찍는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특유의 안무법을 관객과 공유하는 무용 워크숍 '무교육적 댄스'(7월6~8일), 출연진과 함께 춤추며 각자의 안무를 탐구하는 스탠딩 공연 '사우나 세미나'(7월9일) 등 독특한 접근법으로 관객을 유혹한다.

미디어아트와 공연예술의 만남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오디오 비주얼 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태싯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예술적 퍼포먼스로 승화시켜 관객과 실시간 채팅을 시도하는 문자 상황극 'ㅋㅋ프로젝트'(7월15~16일)를 공연한다. 태싯그룹 가재발 작가는 "최근 NFT가 나오면서 제너러티브 아트가 뉴스에 등장하지만, 우리는 20년 전부터 알았다. 우리의 실험도 언젠가는 관객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극계 블루칩 전윤환 연출가는 귀농 연극인의 비트코인 투자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연극 '자연빵'(8월4~7일)을 선보인다. 그는 "청년들이 왜 비트코인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지 의문을 품고 실제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서 "티켓 수입 일부를 무대에서 비트코인에 실시간 투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오페라단과 서울시뮤지컬단도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무대로 호기심을 끈다. 뮤지컬단은 김연수 작가의 소설을 참신한 무대언어로 풀어낸 '원더보이'(8월19~27일)를, 오페라단은 연극과 오페라를 합쳐 '오플레이' 장르로 명명한 '파우스트: 악마의 속삭임(6월23~26일)'으로 관객을 만난다.

/유주현 기자

싱크 넥스트22 무대에 서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왼쪽)와 이날치. 〈사진 세종문화회관〉